



간호사 1명이 환자 1.9명 담당 내가족처럼 돌보는 '안심 병동'

목포시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동' 호평

#1. 목포시 산정1동에 사는 김초단(여·78)씨는 최근 빗길에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통장의 소개로 목포시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기동이 불편해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워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안심 병동에 입원해 불편함 없이 치료를 잘 받고 있다.

#2. 용해동에 사는 김 모(71) 할머니도 양슬부 무릎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연락두절인 자녀로 인해 간병이 어려운 딱한 상황에 처했으나 병원의 권유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처럼 수술 후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층·독거 노인 등도 환자의 권리와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목포시 의료원(원장 최태욱)이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 서남권 거점 공공병원인 목포시 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올 4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동'을 50 병상 규모로 운영해 오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이하 안심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조무사 포함)이 32명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인력을 25명밖에 확보하지 못해 40 병상만 운영되고 있다.

일반 병동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가 5.9명인 반면, 안심병동은 간호사 1인당 환자가 1.9명에 불과해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환자나 가족들은 월 평균 200여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 병원을 오가며 소요되는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병인 보다 나



안심병동 회진에 나선 최태욱 원장이 입원한 환자와 대화를 나누며 불편한 데는 없는지 살피고 있다.

4월부터 40병상 운영...재활에서 세면·식사 수발까지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24시간 밀착형 의료복지
환자 가족 간병비 부담 줄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1석3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병동 운영비로 1 병상 당 매월 4만4570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된다.

최태욱 원장은 "기존의 단순 간병비 지원과 달리 간호 전문 인력이 포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입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의 치료 결과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간호 인력이 확충되는 대로 50 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의 수간호사는 "질환에 따라 이동이나 재활운동은 물론 세면·식사 수발에 이르기까지 지원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가족처럼 돌봐줘 너무 고맙다며 손을 꼭

붙잡을 때마다 피로가 가시고 제 부모라고 생각하면 보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고령 환자의 경우 집중간호와 낙상 예방을 위해 병실을 수시로 드나들다 보면 환자들이 귀찮다는 표현을 할 정도"라며 일화를 소개했다.

이 같은 안심병동 운영과 맞물려 최신의료장비 확충과 의료진 보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기존 64채널인 CT를 128채널로, 기존 1.5T(Tesla)에 불과한 MRI를 3.0T로 교체하기 위해 8월 계약을 의뢰했다.

또 올해 들어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개설하고 재활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 의료원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1년 재활요양 병동을 준공한 데 이어 올 3월 의료원 본관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치고 30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났다.

박주 원무부장에 따르면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한 이후 1일 평균 환자 수(7월 현재)가 지난해 7월 외래 418명, 입원 220명이었으나 올해는 외래 479명, 입원 301명 대비 36%나 증가했다. 그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5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시 의료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의료계획 종합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이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도 환자만족도 부문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음을 공인받은 바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의회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나서

역대 의장단 초청 현안 논의

제10대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사진)가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최근 목포시와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를 잇달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역대 의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제4대 김천옥·최정선 전 의장부터 제5대 이광래·임승본, 제7대 김대중, 제8대 박병석·노상익, 제9대 배종범·오승원 전 의장까지 9명의 역대 의장과 현 제10대 조성오 의장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이어 지난 8일에도 제9대 의회 퇴직의원 12명을 초청해 만찬을 같이하며 조언



조성오 의장

을 들었다. 조성오 의장은 "역대 의장단과 제9대 의회 퇴직의원들의 의견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11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진도군민 피해보상과 생계지원 방안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절망과 시름에 빠진 진도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900여억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생계지원 방안, 관광 활성화 대책 등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안전보건공단-목포시 '안심도시 목포 만들기' 협약

안전보건공단 전남서부지사(지사장 최수봉)는 최근 목포시청 2층 상환실에서 목포시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심도시 목포 만들기'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시 행정력과 공단의 기술력을 융합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물론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협동 전개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목포시는 시가 발주 또는 허가하는 작업현장(건설현장과 오·폐수시설등의 밀폐공간 작업장, 청소 및 위탁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한 근원적 안전확보를 위한 심사, 기술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도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공동 대응에 나서고,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지원, 시민 안전의식 고취



를 위한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최수봉 지사장은 "삶의 터전인 일터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홍률 시장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해안 저지대 11~15일 조위 상승 침수피해 대비해야

목포시 해안 저지대의 조위 상승에 따라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목포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만조 시 5.26m까지 상승,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시는 조위 상승을 앞두고 방조제와 방

파제, 선착장, 해안 저지대 주택·상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이면 해수 위험일로 지정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의료원 전경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예약 : 061)536-100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선착순 한정판매

선불 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시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40%	기명1인 50%	무기명1팀(전원) 40%

공통 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입장료	주 중	60,000	18홀 기준
	주말(공휴일)	90,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3만원/주말4만5천원 (카트료 포함)

구매했으니 061-536-3952